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 습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독서에서 메모하기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독자는 메모하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용한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독자가 글을 읽으며 작성한 메모는 이후에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로써 복습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글을 읽으며 갖게 되는 의문이나 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메모하면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독서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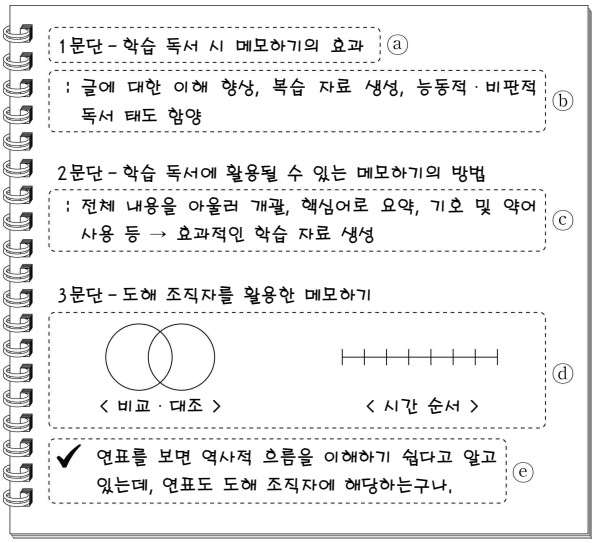
학습 독서에 활용될 수 있는 메모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전체 내용을 아울러 개괄하기, 핵심어로 요약하기, 기호 및 약어 사용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담긴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새로운 정보를 배경지식과 연결 짓게 된다. 따라서 학습 독서에서 메모하기는 독자가 글의 내용 중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재조직하여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습 독서에서 독자가 주로 접하게 되는 글은 설명적 텍스트이다. 설명적 텍스트에는 비교 및 대조, 원인과 결과, 시간 순서, 열거 등의 텍스트 구조가 사용된다. 이러한 텍스트 구조에 따라 주요 내용을 시각화하여 메모할 때는 도해 조직자를 활용할 수 있다. 도해 조직자란 선, 화살표, 도형, 순서도 등을 사용하여 텍스트 구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비교 및 대조의 구조를 지닌 글을 읽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메모할 수 있으며, 시간 순서의 구조를 지닌 글을 읽을 때 일정한 간격이 표시된 선을 활용하여 메모할 수 있다. 텍스트 구조에 따라 둘 이상의 도해 조직자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메모하기는 지식 습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독자가 글을 읽으며 작성한 메모는 이후에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된다.
③ 도해 조직자는 텍스트 구조에 따라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메모할 때 활용될 수 있다.
④ 독자는 학습 독서를 할 때 인과, 열거 등의 구조가 사용된 설명적 텍스트를 주로 읽게 된다.
⑤ 작성한 메모를 복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특정한 도해 조직자로 시각화되어야 한다.

2.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으며 작성한 메모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1문단을 개괄하여 정리한 것이군.
② ⓑ: 1문단의 주요 내용을 핵심어로 요약한 것이군.
③ ⓒ: 2문단에 제시된 정보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드러낸 것이군.
④ ⓓ: 3문단에 사용된 텍스트 구조를 두 개의 도해 조직자를 함께 활용하여 시각화한 것이군.
⑤ ⓔ: 3문단의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결 지어 이해한 내용을 드러낸 것이군.

3.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비록 스무 번을 읽어 왼다 하더라도 한 차례 힘들여 써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 심오한 이치를 끌어낸다면 이치를 생각하는 데 정밀하지 않음이 없을 것임에랴? 만일 그중에서 다시 같고 다른 점을 살피고 옳고 그른 점을 판단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기록한 다음 그에 대한 변론을 붙인다면, 지혜의 개발됨이 더욱 깊고 마음의 안착됨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 이덕무, 『청장관전서』 –

① 글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만을 기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의문이나 견해를 기록하는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③ 글을 읽을 때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④ 글을 읽을 때 기존의 학설을 기준으로 내용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기록해야 한다.
⑤ 글을 읽을 때 독자의 배경지식과 일치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면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 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었다.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라 할 수 있다.

(나)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 절차 중에 행하여진 강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적부 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

적부 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이는 피의자가 ⓓ강제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는 수사 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법관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했더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이는 영장 발부라는 일회적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즉 강제 처분은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강제 처분의 적용 범위를, (나)는 강제 처분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② (가)는 강제 처분의 이론적 배경을, (나)는 강제 처분이 행사된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③ (가)는 강제 처분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나)는 강제 처분의 행사 주체가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강제 처분이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이유를, (나)는 강제 처분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가)는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나)는 행사된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5. (가)와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강제 처분은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강제 처분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체포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수사 기관의 강제력을 통제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④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에 대한 적부 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⑤ 적부 심사에서 강제 처분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다.

6.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의 법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에서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② ㉡에서의 법관의 판단은 ㉠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다.
③ ㉠은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지만, ㉡은 상황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④ ㉠은 청구권자가 수사 기관으로 한정되지만, ㉡은 피의자 본인 이외에도 청구권자가 다양하다.
⑤ ㉠은 강제 처분 이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은 강제 처분 이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한다.

7.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제 처분의 적법성은 행사 이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② 판단 시점에 따라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부 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④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다수의 검증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형사 절차에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문화재 연쇄 훼손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지만, 수사 기관은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곧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갑의 변호인은 갑을 접견한 이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적부 심사에서 갑의 변호인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갑의 석방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갑의 석방을 결정하였고,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되었다.

① 체포 이후 갑에게는 이미 일어난 신체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겠군.
② 갑에게 발부된 영장은 법원의 판단 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기본권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하겠군.
③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갑에게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겠군.
④ 갑의 변호인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은 강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겠군.
⑤ 법원이 갑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9. ⓐ ~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통제 없이 사용되어
② ⓑ : 기본권의 제한을 보장하는
③ ⓒ :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④ ⓓ :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해
⑤ ⓔ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10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 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한다.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다.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로,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로 작용한다. 이 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DAT)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뉴런 안에서 분해된다. 다만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포함된다.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다.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다.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어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되면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이로 인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면서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운동이 시작된다. 반면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된다.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하여 목표하는 운동의 시작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

1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선조체 뉴런 중에는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
②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
③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④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⑤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떤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 여부가 달라진다.

11.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성 뉴런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네. 그렇지만 그 양이 조절되는 양상은 [ⓐ] 때문에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

① 도파민 분해 효소가 도파민성 뉴런 내부에 있기
② DAT나 D2 계열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이 있기
③ D1 계열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기
④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 도파민 중 일부는 분해되지 않고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기
⑤ 도파민성 뉴런의 DAT 존재 여부에 따라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되는 도파민의 양이 달라지기

1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② ㉡은 ㉠과 달리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는다.
③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④ ㉠과 ㉡은 모두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된다.
⑤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각 경로를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게 된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파킨슨병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어 선조체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수의적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는 것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의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단, 모든 약물은 입을 통해 투여되며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수 있다.)

(가) 레보도파 :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어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킴. 투여된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됨.
(나) 카르비도파 :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며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여 말초 조직에서만 작용함.
(다) 프라미펙솔 :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뉴런에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기능하게 함.

① (가)는 도파민과 달리 약물로 투여할 경우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겠군.
② (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군.
③ (다)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군.
④ (나)를 (가)와 함께 투여하면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것이 차단되어 뇌로 전달되는 레보도파의 양이 증가하겠군.
⑤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와 (다)를 병용할 수 있겠군.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네트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목적격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며, '주격 나'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자아이다.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면 개인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하는 경우 개인은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대안적 정체성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하기도 하는데, 정체성의 인정을 위한 이러한 저항을 인정 투쟁이라 한다. 인정 투쟁의 성공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며, 호네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수행성의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수행성이란 수행에 의해 대상이 구성되는 성질이다. 규범이 수행성을 지녔다는 것은 수행이 규범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임을 뜻한다.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그 역시 수행성을 지닌다. 개인은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면서, 규범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버틀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개인이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 투쟁으로서의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 이때 인정 투쟁은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규범을 주도하는 권력이나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차이를 내세우며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정 투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정 투쟁의 성공은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는 이러한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인정 투쟁의 주체는 규범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할 때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

14. 규범에 대한 '호네트'와 '버틀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네트는 규범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호네트와 달리 버틀러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④ 버틀러와 달리 호네트는 규범이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고정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⑤ 호네트와 버틀러는 모두 인정 투쟁의 결과로 인한 규범의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진리 체제가 작동시키는 규범이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생존 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진리 체제인 규범 역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③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화 『○○』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을 다룬다. 갑오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백정이 해방되었지만 차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백정 갑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했다. 하지만 아들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허가받지 못하자 그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형평사를 결성하였고, 그 결과 백정의 자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하였고 차별은 계속되었다.

① 호네트의 견해에 의하면, 갑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한 것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한 것이겠군.
② 버틀러의 견해에 의하면, 갑은 아들이 학교 입학을 허가받지 못한 것을 보며 차이를 의식한 것이겠군.
③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갑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한 것이겠군.
⑤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형평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계속된 것은 인정 투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잔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일어났다.
② 큰형의 노력에 의해 집안이 다시 일어났다.
③ 그는 오랜 지병을 이겨 내고 병상에서 일어났다.
④ 오래된 서가의 책장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⑤ 유명 배우가 공항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일어났다.

[18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
㉠내 다 가 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나)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데굴데굴 굴러 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 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발걸음에서 튀어 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 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를

[A]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 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 올린 풀이라는 것을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을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B]

– 김기택,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

(다)

[앞부분의 내용] 글쓴이('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인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오호라! 인생은 백 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느니보다는 방외에 마음을 두어 노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붓 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혹의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 놓은 말**이야 말해 무엇 하랴!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먼저 그 이름부터 지었더군.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어찌 ㉡꿈에서 파초 잎으로 덮어 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안이요, 원림은 밖일세. 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본다네.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네.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 놓은 전원이 천 년 백 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하니 어찌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재를 삼았던가? 이에 대해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걸세.

옛날 중장통은 「낙지론」을 지어 소망했으나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글에나 기탁하였을 뿐이네. 유린은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이 없었다네. 그 친구인 문징중이 그를 위해 「신루도」를 그려서 선물했네.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

거니와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
첨재 강세황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 「의원도」를 그려 주마고 약속하였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노닒이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이름과 실재를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

– 유경종, 「의원지」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다)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② (가), (나)와 달리 (다)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음성상징어를, (나)와 (다)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가)는 의문형 어미를, (나)와 (다)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다)는 모두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

19.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 주목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② [A]에서 '웃음'과 '발걸음'의 주체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을 토대로 [B]에서 '외로운 추수꾼'으로 지시된다.
③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연된다.
④ [A]의 '발걸음'에서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쇄는 [B]에서의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⑤ [A]의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은 [B]에서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에 대응되면서, '외로운 추수꾼'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기대를 간직한 채 망설이는 태도를, ㉡은 꿈에서의 기대를 내려놓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은 기대 실현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 형성된 기대를 현실로 확장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미련을 버리고 기대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떨치고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현실에서 품은 기대가 좌절될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허상으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사실의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여기'의 현실로 소환한다. (가), (나), (다)는 각각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를 드러낸다.

① (가)에서 '당신'의 부재는 '서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나)에서 '커다란 웃음'은 '고층 빌딩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② (가)에서 '여느 바다'에 대한 경험은 '그곳 바다'와의 공통적 속성을 유추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이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의식하게 하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군.
③ (나)에서 '서류 뭉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와 동일시되면서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군.
④ (가)의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다)의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공간의 물리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군.
⑤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과 (다)의 '종이 위에 펼쳐 놓은 말'에 대한 언급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에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22. (다)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붓 끝에서 완성하는' 일을 대비하여, 실제 원림을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② '힐난하는 이'는 '이름'과 '실질'의 관계를 언급하며, 원림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③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재하는 형상에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나'는 '이름과 실재를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라고 언급함으로써,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미는가.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벼슬아치 앞에 다녀왔나 땀이 등을 적시겠구나.
㉠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할 수 없다. 동냥도 하시는고?
중인도 속절없다. 등짐도 지시는고?
밥벌이를 하셨으니 저녁밥을 많이 먹소.
㉡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어먹기** 매번 하랴.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망정 이 노릇은 못 하겠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삼기**나 하리라.
짚 한 단 적셔 놓고 신날부터 꼬아 보니
㉢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짚 새끼를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채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네.
할 수 없이 내어놓고 **노 꼬기**나 하리라.
긴 삼대 벗겨 내어 자리 노를 배워 꼬니
오동에 낙엽 지고 가을바람 소슬한데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물과 하늘 한 빛**이구나.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노 꼬기에 부쳤도다.
(중략)
내 아니 잊었는데 임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눈서리 친다 한들 ⓐ 비와 이슬 아니 올까.
울면서 떠난 **임**을 **웃으며** 만나고 싶네.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니 무엇으로 끄겠는가.
끄기도 어려운 불 오장의 불이로다.
ⓑ 하늘 물 얻으면 끌 수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다.
차라리 빨리 죽어 이 설움을 모르고 싶네.
포구 가에 퍼져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며
적막한 중문 굳게 닫고 온갖 일 다 버리고
굶어 죽으려 함도 몇 번인지 아실른가.
㉣ 일각이 삼 년처럼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사립문에 개 짖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아* 파는 **장수**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라.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는고.
설움 모여 병이 나니 온갖 증세 한꺼번에 나온다.
㉤ 배가 고파 허기증에 몸이 추워 냉증이요
잠 못 들어 현기증 나니 조갈증은 늘 앓는 병이로다.
술로 든 병이면 술을 먹어 고치며
임으로 든 병이면 임을 만나 고치니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려**고 한들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으려 하겠는가.
– 안도환, 「만언사」 –

* 황아 : 일용 잡화.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의 영원성과 대조되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② 어지러운 세태를 제시하고 이에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주변 경치를 관찰하고 느낀 감상을 표출하고 있다.
④ 자연에서의 낯선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탈속적 이상향을 향한 동경을 강조하고 있다.
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을 반복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② ㉡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대응시켜 상대의 언행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③ ㉢ : 상반된 행위를 연달아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 : 열거의 방식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2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특정 행위가 동기로 작용하여 일어난 상반된 결과이다.
② ⓐ와 ⓑ는 정서의 형성을 매개하면서 그 정서가 표출되는 방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③ ⓐ와 ⓑ는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대비를 이루는 대상이다.
④ ⓐ에서 ⓑ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다.
⑤ ⓐ에서 ⓑ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뀔 것임을 암시하는 배경이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만언사」의 화자는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탐색과 반응의 구조는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강화한다.

① '빌어먹기'에 이어서 '신 삼기'와 '노 꼬기'를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은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하려는 반복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군.
② '가지런히' 나는 '오리' 및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은 '근심 많은 이내 마음'을 '노 꼬기'에 부치게 된 화자의 상태에 조응하는 자연의 풍광이라고 볼 수 있군.
③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임'과 '웃으며' 재회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다는 진술에서 그 간절함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공문'과 '장수'의 대응과, '석방 문서 가진 관선'과 '고기 잡는 어선'의 대응은 희망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면서 소망의 실현이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군.
⑤ '임으로 든 병'을 고치는 방법에 착안하여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려'는 것은, 귀양살이로 인한 '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이름얻기'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 왔을 때에야 시작되었다. 그와 다른 열한 명의 소년은 '들소의 계곡' 입구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다른 혈족들과 싸움 중이면 전열의 맨 앞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맹수 사냥의 창잡이로 나서야 했는데, 그해는 들소 사냥의 창잡이로 결정된 것이었다.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원**인 동시에 힘과 용기를 시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맹수였다. ㉠ 그 날카로운 뿔은 호랑이의 뱃가죽을 찢어 놓고 체중 실린 발굽은 곰의 허리뼈를 분질러 놓았다.

㉡ 소년들은 흥분과 초조 속에 멀리서 소를 몰아오는 아버지들의 은은한 함성을 듣고 있었다. 이제 잠시 후면 나타날 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보고 있는 큰 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용사의 자격**과 평생을 따라다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닌 이름은 '달무리'라든가 '붉은 노을', '새벽 안개' 따위, 태어날 때의 자연 현상과 관계되는 유아의 이름이었다.

그가 맡게 된 것은 계곡 가운데의 조그만 바위 곁이었다. ㉢ 그 역시 불안과 설렘으로 방금이라도 소가 뛰어나올 것 같은 전방의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를 건드리는 소년이 있었다. 눈이 작고 좀체 깜박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뱀눈'이라고 불리는 소년이었는데 힘은 대단하지 않아도 창과 활을 잘 다루고, 무엇보다도 영리하여 곧잘 아버지를 감탄시켰다.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길 지킬 테니."

'뱀눈'이 말했다. 그는 왠지 '뱀눈'이 섬뜩하고 싫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펴보니까 여기가 들소의 길목이야. 그런데 너의 영성한 창질이나 활 솜씨로 지켜 낼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붉은 노을' 쪽으로 가 봐. 그 애는 힘이 세고 창을 잘 쓰니까 오히려 그쪽이 안전할 거야."

그는 무언가 '뱀눈'에게 속고 있는 기분이 들었으나, 마땅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아 '붉은 노을'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

들소는 그로부터 오래잖아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요란한 함성과 나무토막 두들기는 소리에 몰려 뛰쳐나오는 들소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산부리 쪽에 있던 '큰 울음소리'였다.

"소가 온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 들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계속됐다.

[A] 그도 곧 숲 가의 관목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들소를 보았다. 처음 그 소는 똑바로 '뱀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새 바위 위에 올라가 똑바로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뱀눈' 바로 곁에서 소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뱀눈'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견 소는 '뱀눈'을 피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뱀눈'이 올라서 있는 한 길 남짓한 바위를 피해 간 것이었다. 거기다가 소가 방향을 바꿀 때 소의 가장 넓은 옆면이 그대로 '뱀눈'에게 노출되었다. '뱀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소에게 창을 날렸다. 창은 어김없이 소의 질긴 뱃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혔다. 결국 '뱀눈'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맨 먼저 찌른 자'란 명예를 확보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서 드러나 있어 큰 아버지들에게는 '뱀눈'의 용기와 힘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무대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옆구리에 창을 받은 들소는 바로 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황급히 창을 겨누었**다. 그러나 달려오는 들소의 정면은 '뱀눈'이 맞힌 넓은 옆면의 삼 분의 일도 안되었다. 남은 것은 정면 대결뿐이었다. 그는 혼신의 용기로 창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그는 곧 **덮쳐 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 소리**에, 고통과 분노로 불타는 두 눈과 치명적인 일격으로 고양된 **생명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살기**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다.

[중략 부분의 내용] '소를 겁내는 자'가 된 그는 들소 사냥에 재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동굴로 들어가 들소 그리기에 몰두한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소금기를 핥은 후에도 유유히 주변을 배회하며 신선한 풀을 뜯었다. 그런 그들을 발굽에서 뿔 끝까지 터럭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살피고 있는 그의 가슴은 들소와 대면했던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때는 기껏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네 존재 자체이다. 이제 나는 너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잡아 두고자** 한다.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영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화체 바로 그림 자체를 위해서이다…….

그가 들소에게 몰두해 있는 사이에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그의 몸을 오르내리던 신열이 조금씩 고통으로 변해 갔다. 그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 고통은 내일 날이 밝아야 없어질 것이었다.

갑자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에 그는 심한 재채기가 났다. 그러자 놀란 소들이 그가 있는 벼랑 쪽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공격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된 듯 몇 번 위협적인 콧김을 내뿜더니 어슬렁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는 식의 걸음걸이였다.

㉤동굴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준비해 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동굴 벽에 돌출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손만 뻗으면 천장의 들소 그림에 닿는 곳이었다. 그는 근처의 바위 틈새에 불붙은 관솔가지를 꽂고 그 불빛에 의지해 방금 보고 온 들소의 모습을 천장 벽에 옮기기 시작했다. 채색을 하기 전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었다. 어렴풋한 윤곽으로만 떠올라 있던 소는 수지에 갠 검댕으로 점차 선명한 형태를 이루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전방을 응시하며 앞다리에 힘을 모은 수소였다.

소묘가 완성되자 그는 잠시 그 소를 들여다보았다. 문득 자기에게 덮쳐 오던 엄청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에 불만스러웠다. 아마도 정지된 자세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는 엉덩이 쪽을 더 살리고 뒷다리를 앞으로 굽게 했다. 질주해 오다가 우뚝 멈추어 선 것 같은, 약간의 생동감이 살아났다.

그때 관솔가지가 다 타서 불이 꺼져 버렸다. 바닥으로 내려와 새로운 관솔가지를 찾아 든 그는 거기에 불을 붙이려다가 곧 단념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오한과 신열**이 거대한 피로와 함께 갑작스레 그를 짓눌러 왔다.

– 이문열, 「들소」 –

27. 이름얻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태어날 당시의 명명과 달리 용기와 사냥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받는 의식이다.
② 이름에 내재된 자연 현상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부족의 세계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의식이다.
③ 신체의 강점과 전투력을 보여 줌으로써 태어날 때 임의로 부여받은 이름을 공고히 유지하는 의식이다.
④ 관습에 따른 명명에서 벗어나 집단과 차별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의식이다.
⑤ 이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것과 달리 공동체에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호명될 이름을 선택하는 의식이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을 부각하여 그것이 지닌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② ㉡: 사냥을 앞둔 소년들의 긴장감을 청각적 경험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③ ㉢: 복합적인 심정으로 목표물과의 대면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④ ㉣: 인물의 심리를 대상에 투영하여 대상의 움직임에 의도를 부여하고 있다.
⑤ ㉤: 행동의 연속적 제시를 통해 관찰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익숙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9.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의 국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③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④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예측했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⑤ 인용 부호를 생략한 발화를 제시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들소'는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총체이다. 들소를 식량원이자 서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실패한 주인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들소는 물리적 살생의 대상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① '훌륭한 식량원'과 '진정한 용사의 자격'을 얻고자 소년들이 나서는 것은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수렵 대상인 들소를 포획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군.
② '돌진해 오'는 들소에게 '황급히 창을 겨누었'지만 '덮쳐 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 소리'에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주인공의 포획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알 수 있군.
③ '오한과 신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은 들소를 포착하여 공동체의 서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을 보여 주는군.
④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는 들소의 '생명력'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 이를 그림에 온전히 담으려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군.
⑤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들소를 '잡아 두고자' 하는 것에서 들소가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 태후는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 태후의 소생이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가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 천상 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처럼 느껴졌다. 보모를 시켜 뉘 집 상공인지를 알아 오라고 했다.

유모가 응명하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윤 이중백이더이다."

군주가 기뻐했다. **태후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태후가 상을 알현하고 여쭈니 상이 또한 태후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중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자 상이 시랑과 태후를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일하니, 오월 순희였다.

시랑이 부인을 향하여 ㉡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옳으리오?"

부인이 침음 오열하여 말하기를,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현요가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이라도 **폐하지 못**하나이다.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장부로 자나 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만일 현요와 성례한 이후에는 만사에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요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삼가지 못해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현요의 연연약질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례를 말고 중백이 군주를 가까이하고 좌처를 임의로 알아 하거든 소저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여 어가가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 가며 선처하느니만 같지 못하리이다."

시랑이 옳게 여기지만, 현요의 부친 오 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를 생각하고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이에 수매정에 가서 현요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저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소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말을 마치고 천연 자약하니, 대개 그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군주와 혼인한 후에 이중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군주는 그 연유를 알아내고 주 태후와 천자에게 고변한다.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은 감옥에 갇힌다.

한편, 각도 제후들이 천자께 주문하기를,

"제나라 왕이 반의를 두어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련하오니 사신을 보내시어 칙지를 내려 문죄하시고 그 기미를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상이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 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답하셨다.

승상 주연이 태후께 가만히 여쭈기를,

[A]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중백의 죄를 사해 문죄하라 하고 오 소저를 만 리 노국에 실어 보내어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니,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노국 세자도 절색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계교가 기특치 아니하리오."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계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 도모하라!"

주연이 말하기를,

"하교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리이다."

주연이 이튿날 조참에 출반하여 아뢰기를,

"제국 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대신을 보내어야 반드시 천조를 욕 먹이지 않고 후환을 없게 하리니,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 하시나이까?"

상이 이르시기를,

"짐의 생각이 또한 그러하도다. 경등이 천거하여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연이 다시 부복하여 아뢰기를,

"감옥 죄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즉일에 사면하시고, 상서를 복야에 승품하사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태후의 뜻을 승순하여 죄를 내리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품계를 더 높이 올렸으니,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인이 사은 퇴조하니, 심 부인이 ㉢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 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또 이제 너를 만리타국에 보내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회포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B] "자친을 오래 떠나는 정은 간측하오나 소자의 대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로소이다.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함은 가중에서 일어난 바요, 군주가 만든 일이옵니다.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심도 주연과 태후의 계교이니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 틀림없이 오 씨를 참살할 뜻이오니, 어찌 분완치 않으오리까. 군주가 제가 출행하기 이전에는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군주는 종래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 보모를 보내어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 보모가 상서 가중에 와서 기색을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으므로, 보모가 ㉣ 대희하여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대내에 들어가서는 여쭈기를,

"상서의 집 사람이 다 청안 우매하여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숙부께 뵈오려 가 계시더이다."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엄위한 기상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기실은 상서가 원행해야 하므로 아니 나옴이 도리가 아니요, 또 상사 일념에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자 하여 상서 부중에 나왔다. 가중의 상하가 군주를 보고 ㉤ 괴로워하고 무이히 여기며,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었다.

– 작자 미상, 「수매청심록」 –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중백은 군주와의 혼인을 거절했으나 상은 강제로 혼인 날짜를 정했다.
② 시랑은 현요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③ 상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야 한다는 승상 주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④ 승상 주연은 중백의 사면을 건의했고 상은 이를 수용한 후 중백에게 기존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⑤ 군주는 중백의 질책을 염려하였으나 중백이 떠나기 전에 상서 부중에 나가는 것이 도리에 부합하는 행위라 판단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중백'을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이며, '보모'에게 원하는 정보를 구해 오라는 요청으로 이어지는군.
② ㉡: '상'의 명령을 받은 '시랑'의 반응이며,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지는군.
③ ㉢: 새로운 정보를 접한 '심 부인'의 반응이며, 거듭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발언으로 이어지는군.
④ ㉣: '상서 가중'을 관찰한 '보모'의 반응이며,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⑤ ㉤: '군주'를 본 '가중의 상하'의 반응이며, 본심을 감춘 언사로 이어지는군.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제시된 제안은 [B]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분석되고 있다.
② [A]에서 예상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B]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③ [A]에서 언급된 기묘한 계책은 [B]에서 실현을 위한 방안이 추가되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④ [A]에서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된 대외 상황의 변화는 [B]에서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⑤ [A]에서 인물의 지위 차이로 촉발된 갈등 상황은 [B]에서 위계질서를 수용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수매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응은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① 군주가 '태후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상이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한 것은, 공적 권력이 개인의 애정 관계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겠군.
②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도 '폐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부인이 언급한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승상 주연이 중백을 '소임에 적합'한 자로 평가하는 것은, 군주와 태후의 사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과 공적 명분이 부합하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이겠군.
⑤ 중백이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임명받는 것은, 중백과 현요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을 갖추어 성립되며, 여기에 부속 성분이나 독립 성분이 더해지기도 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간의 결합 관계를 가리켜 문장 구조라고 하는데, 한 문장의 구조가 둘 이상으로 분석될 때는 문장의 중의성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문장 구조가 둘 이상으로 분석될 수 있을까? 먼저 수식 관계와 관련하여 문장 내에서 관형어 또는 부사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에 따라 문장 구조가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철수의 그림이 전시되었다.'는 관형어 '내가 좋아하는'이 '철수'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철수의 그림'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또한 '나는 아주 새 옷을 좋아한다.'는 부사어 '아주'가 '새'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좋아한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한편 부사어는 안은문장의 성분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안긴문장의 성분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형이는 어제 입원한 친구에게 전화했다.'에서 부사어 '어제'는 안은문장의 '전화했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안긴문장의 '입원한'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행위 주체의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와/과'나 '(이)랑', '하고'가 쓰인 문장 중에서 그 구조가 둘 이상으로 분석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정민이가 소희와 지아를 기다렸다.'에서 '기다렸다'의 주체를 '정민'으로 분석하면 '기다렸다'의 대상은 '소희', '지아'가 되는데, 이때의 '와'는 앞뒤의 명사를 결합하는 접속 조사로 분석된다. 반면 '기다렸다'의 주체를 '정민', '소희'로 분석하면 '기다렸다'의 대상은 '지아'가 된다. 이때의 '와'는 선행 명사를 앞의 주어와 짝을 이루게 하는 동반의 부사격 조사로 분석된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다양하게 분석되는 문장은 중의성이 나타난다.
② 부사어의 수식 대상과 관련하여 문장 구조가 여러 개로 분석되는 문장은 모두 겹문장이다.
③ '나는 책을 읽었다.'는 서술어와 서술어가 필수로 요구하는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④ '나는 친구와 함께 놀았다.'는 조사 '와'가 쓰였으나 문장 구조가 하나로만 분석되는 문장이다.
⑤ 문장에서 관형어의 수식 대상이 다양하게 분석되는 것은 중의성이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자 료 >

㉠ 그는 도희랑 혜빈이에게 책을 주었다.
㉡ 그녀는 종일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에 머물렀다.
㉢ 나는 이 근처로 이사를 온 그와 그녀를 만났다.
㉣ 그는 아침에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내게 말했다.
㉤ 검은 모자를 쓴 그하고 그녀는 내 오랜 친구들이다.

① ㉠: 문장 구조가 두 개로 분석되더라도 각각의 경우 모두 '랑'은 부사격 조사로 분석된다.
② ㉡: '종일'이 수식하는 대상이 안긴문장의 성분으로 분석되면, 그녀가 가게에 종일 머물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 ㉢: '이 근처로 이사를 온'의 수식 대상이 '그'인 경우와 '그와 그녀'인 경우 모두, '만났다'의 주체는 '나'로만 분석된다.
④ ㉣: '아침에'가 수식하는 대상이 안긴문장의 성분으로 분석되면, 그가 말한 시점이 아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⑤ ㉤: 문장 구조가 두 개로 분석되더라도 각각의 경우 모두 '하고'는 접속 조사로 분석된다.

37.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를 배웠지요? 이 음운 변동 중에서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이 한 단어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진흙물[진흥물]'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한 번씩 일어나는 단어예요. 음운 변동이 이와 동일하게 일어나는 단어로 '닭냉채[당냉채]'가 있어요. 그럼 음운 변동이 '겯눈질[겯눈질]'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단어의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① '잡일[잠닐]'과 '칡덩굴[칙떵굴]'이 있어요.
② '늦잠[늗짬]'과 '첫마디[천마디]'가 있어요.
③ '개울녘[개울력]'과 '분말약[분말략]'이 있어요.
④ '꽃노을[꼰노을]'과 '옆넓이[염널비]'가 있어요.
⑤ '겉모습[건모습]'과 '가랑잎[가랑닙]'이 있어요.

38.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동 표현은 자동사나 타동사, 형용사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어 실현되거나, '-게 하다'에 의해 실현된다. 현대 국어에는 '-이-', '-히-', '-리-', '-기-' 등의 사동 접미사가 있고, 중세 국어에는 '-이-', '-히-', '-리-', '-기-', '-ᄋᆞ/으-' 등의 사동 접미사가 있었다. 중세 국어와 비교할 때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은 동일한 어근에 같은 형태의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동일한 어근에 다른 형태의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중세 국어와 달리 '-게 하다'와만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 자 료 >

○ 히ᄂᆞᆫ 나ᄅᆞᆯ ⓐ 붉기(붉-+-이-)시고
[해는 낮을 밝히시고]
○ 이 아ᄃᆞᄅᆞᆯ ⓑ 사ᄅᆞ(살-+-ᄋᆞ-)고라
[이 아들을 살리고 싶다]
○ 우믌므를 ᄒᆞᄅᆞ 五百 디위옴 ⓒ 길이(긷-+-이-)더시니
[우물물을 하루 오백 번씩 긷게 하시더니(*길이시더니)]
○ 太子ㅣ 왼소내 믈 자바 道士ㅅ 손 ⓓ 싯기(싯-+-기-)고
[태자가 왼손에 물을 잡아 도사의 손을 씻기고]
('*'은 비문법적임을 뜻함.)

① ⓐ는 형용사 '붉다'(>밝다)의 어근에, ⓑ는 자동사 '살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군.
② ⓒ와 ⓓ는 각각 타동사 '긷다'와 타동사 '싯다'(>씻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군.
③ ⓐ와 ⓑ는 모두,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형태의 사동 접미사가 어근에 결합한 것이군.
④ ⓒ는 현대 국어와 달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어 사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군.
⑤ ⓓ는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사동 접미사가 어근에 결합되어 사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군.

39.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합성어 중에는 ㉠ 어미 '-아/어'나 '-고' 등이 결합한 용언의 연결형이 포함된 것이나, ㉡ 어미 '-(으)ㄴ'이나 '-(으)ㄹ' 등이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이 포함된 것도 있다.

① 산에 올라갈 때는 뱀과 같은 길짐승을 주의해야 한다.
② 그들의 지고지순했던 지난날 이야기에 눈물이 흘렀다.
③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는 항상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④ 먹고살기 위해서라면 많은 고생도 다 견딜 수 있었다.
⑤ 혼자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40 ~ 42]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미래 사회의 흐름을 읽는 '현재와 미래를 잇다' 채널의 진행자 이음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 대화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올려 주시고, 대화창에서는 대화 예절을 지켜 주세요. 오늘은 '표준 특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표준 특허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구름 : 표준 특허라는 건 처음 들어 봐요. 특허에도 표준이 있나요?

ⓐ 구름 님처럼 많은 분들이 표준 특허라는 말부터 낯설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선 '특허'는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얻는 독점적인 권리로, 발명자의 기술이 도용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표준 특허는 무엇일까요? 표준을 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기술인 표준 기술에 부여되는 특허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나에도 많은 표준 기술이 쓰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것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준 기술입니다. ⓑ 국제표준화기구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반드시 이 표준 기술들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 : 지금 검색해 보니까 스마트폰 말고도 텔레비전, 컴퓨터, 자동차까지 많은 제품들이 모두 표준 기술을 따라야 하네요.

그렇죠, 나무 님. 표준 기술은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술이 표준 특허를 받는다면 세계 기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요. 특허권자는 자신의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 표준 기술을 써야 하니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특허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산들 : 표준 특허를 가진 기업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사용료를 요구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산들 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특허권자는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권리 행사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것이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특허권자가 이러한 원칙에 동의해야만 표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햇살 : △△ 일보 기사 링크 ☜ 이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의 ○○ 통신 회사가 얼마 전 새로운 표준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네요.

햇살 님, 흥미로운 기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 보유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상위권에 있는 표준 특허 강국입니다. ⓒ 특히 정보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바람: *@햇살* 햇살 님, ○○ 통신 회사가 표준 특허를 획득하는 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있었대요!

맞아요, 바람 님. 지식재산처에서는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표준 특허를 확보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표준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표준 특허에 관심을 가지면 세계 기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다시 보기 목록에 올려놓을 테니 놓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하트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4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방송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진행자의 모습과 함께 제시되었다.
② ㉡: 방송에서 다루는 핵심 어구가 '#' 기호와 함께 제시되었다.
③ ㉢: 대화 참여 시 시청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제시되었다.
④ ㉣: 유사한 내용을 다룬 다른 채널의 영상 목록이 제시되었다.
⑤ ㉤: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숫자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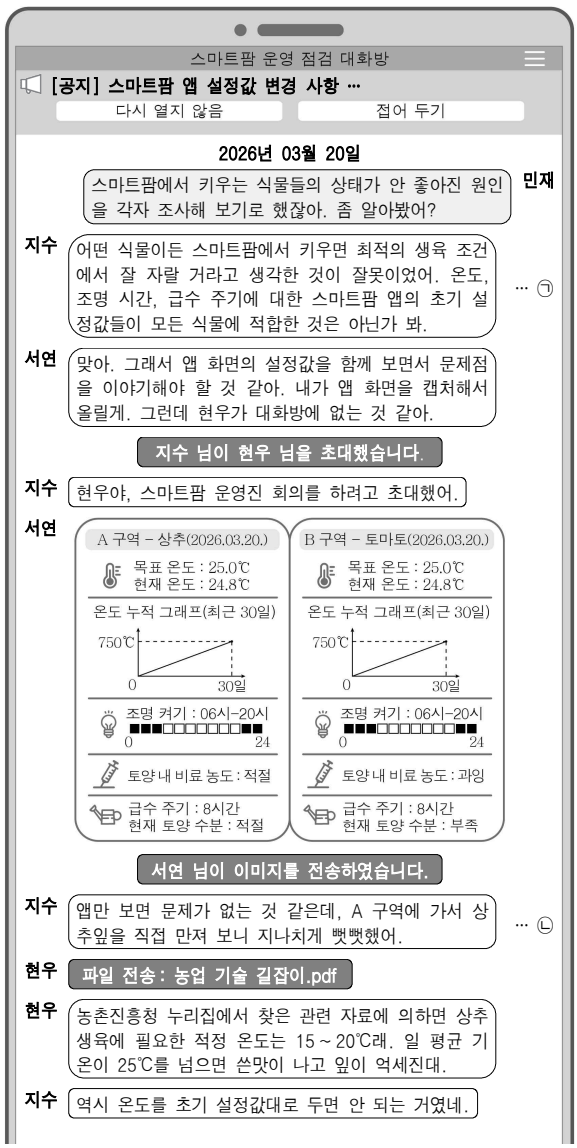
41. 위 방송에 나타난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름'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진행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탐색하여 방송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③ '산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 알게 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햇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여 다른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요청한 정보를 대신 제공하고 있다.
⑤ '바람'은 특정 시청자를 호명하며 앞서 언급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형용사 '같다'를 사용하여, 표준 특허라는 용어가 시청자들에게 생소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② ⓑ: 부사 '반드시'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표준 기술이 예외 없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 대명사 '이'를 사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④ ⓓ: 연결 어미 '-여야만'을 사용하여, 해당 원칙에 대한 특허권자의 동의가 표준 특허 획득의 필수적 조건임을 표현하고 있다.
⑤ ⓔ: 보조 용언 구성 '-고 있다'를 사용하여, 정보 통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을 표현하고 있다.

[43 ~ 45] 다음은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나눈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현우: 온도 누적 그래프를 보면 두 구역 모두 최근 30일간 누적 온도가 750℃쟐아. 그런데 내가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 온도가 상추는 450 ~ 600℃ 정도, 토마토는 600 ~ 750℃ 정도가 되어야 적당하더라고. … ㉢

도현: 상추를 키우기에는 목표 온도가 너무 높았구나.

서연: 그러면 A 구역의 목표 온도를 15℃로 조정해야겠어.

은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상추는 빛을 오래 쬐면 꽃이 피면서 잎이 질겨진대. 개인 누리집에서 찾은 것이라 내용을 믿기 어려웠는데, 현우가 보내 준 파일에서도 확인되는 것을 보니 정확한 정보인 것 같아. … ㉣

민재: 그러면 조명을 얼마나 켜 두면 될까?

현우: 8 ~ 10시간 정도가 적정 범위니까 지금보다 4시간만 줄여 보자.

도현: A 구역은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네. 그런데 토마토는 왜 시들시들한 걸까? 토양 내 비료 농도를 보면 과잉 상태인데 비료 공급량을 줄여야 할까?

지수: 토양 내 비료 농도는 토양 내 물의 양과 관련 있다고 하더라고. 현재 B 구역은 비료 공급량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 수분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 같아. … ㉤

서연: 아! 물이 부족하니까 흙 속에 비료 성분이 농축돼서 비료 농도가 높아진 거겠구나.

민재: 그러면 B 구역의 급수 주기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계속 지켜보자. 설정값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의견은 없어?

은지: 설정 메뉴에서 온도 누적 그래프를 10일 단위의 막대그래프로 바꾸면 어때? 온도의 누적값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목표 온도의 조정이 필요할 때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민재: 좋은 생각이야. 오늘 결정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화방에 공지로 올려 둘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스마트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려고 하는데 선호하는 시간대에 투표해 줘.

민재: 투표하러 가기 >

도현: 투표에 참여했어! 다음 회의에서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점검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오늘 다들 고생 많았어.

민재: 공지가 등록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앱 설정값 변경 사항 …

43. 위 대화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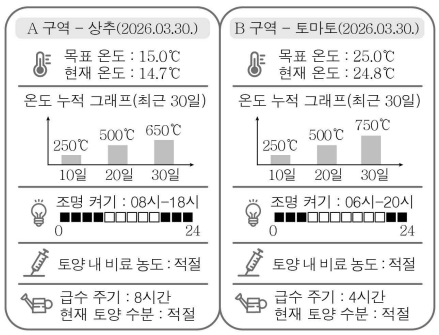
① 초대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있다.
② 이미지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앱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③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④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대화에서 다룰 안건을 선정하고 있다.
⑤ 공지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합의한 내용을 대화 참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4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앱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② ㉡: 앱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 앱에 제시된 시각 자료의 오류를 분석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와 비교하여 자신이 검색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있다.
⑤ ㉤: 배경지식을 토대로 앱에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45. 위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앱 설정을 <보기>와 같이 변경했다고 할 때, 변경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① 은지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표 온도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두 구역 모두 그래프의 형태를 10일 단위의 막대그래프로 변경하였군.
② 서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추 생육에 필요한 적정 온도에 맞게 A 구역의 목표 온도를 자료에 제시된 적정 온도의 최댓값으로 조정하였군.
③ 현우의 의견을 반영하여, 빛을 오래 쬐면 발생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A 구역에 조명을 켜 두는 시간을 적정 범위 내에서 최댓값으로 조정하였군.
④ 민재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양 수분이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구역 모두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군.
⑤ 도현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양 내 비료 농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B 구역의 비료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정을 변경하였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